
조선후기 사대부가의
聯名呈訴 활동과 公論 형성

- 安東 周村 眞城李氏家 사례를 중심으로 -

金景淑

(조선대학교 사학과)

머리말

I. 진성이씨가의 연명정소 실태

II. 조선후기 사대부가의 공론 형성

1. 산송

2. 부세

3. 포양

맺음말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32-A00012)
- 투고일: 2013. 2. 18. ● 심사일: 2013. 2. 25. ● 게재확정일: 2013. 3. 12.

www.kci.go.kr

요약

안동 주촌의 진성이씨가 소장 고문서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사대부가의 연명정소 실태와 공론 형성의 특성을 검토한 논문이다. 필자는 규장각 소장 고문서 1,125건을 통계 분석하여 조선후기 향촌사회의 연명정소 실태를 거시적 관점에서 검토한 적이 있다. 이는 그 후속 연구로 통계 결과를 보완하고 구체화하기 위하여 사대부가의 사례를 미시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씨의 연명정소 활동은 19세기 후반에 급증하면서 활성화하여 조선후기 연명 정소가 19세기 이후 활성화하는 추세와 동일한 흐름을 보인다. 19세기 사회는 의사 표출을 위한 집단 행동이 활성화하는 시기임을 거시적 통계와 함께 미시적 분석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조선후기 연명정소가 소규모 중심인 것과 달리 이씨의 연명정소는 50인 이상 대규모 활동이 중심을 이루었다. 이는 선대의 분산 수호와 깊은 관련성을 보인다. 정소 내용이 산송 45건(61.6%), 부세 15건(20.6%), 포양 7건(9.6%), 기타 6건(8.2%) 등으로 분포하는데, 정소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송과 부세 문제가 모두 분산 수호 과정에서 전개되었다.

이씨가에서는 청송 및 안동 일대에 선대 분산을 수호하였는데, 17세기 후반 이래 시조 이하 5대조에 이르는 모든 분산에서 산송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이씨는 죽인들을 중심으로 문중 공론을 형성하고 집단 정소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19세기 이후 중·대규모 정소활동이 중심을 이루며, 지역적으로도 面里 단계보다는 州縣 또는 주현 연합의 광범위한 공론을 형성하였다. 산송에 대처하는 방식이 적극적이고 대규모화해 갔음을 의미한다. 부세 문제 또한 하층민들의 중소규모 정소활동과 달리 분산 수호 과정에서 면세·면역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중·대규모로 전개되었다. 사대부가의 산송과 부세 관련 정소활동은 선대 분산

조선후기 사대부가의 聯名呈訴 活動과 公論 형성

수호를 실현한다는 爲先意識을 바탕으로 자손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안들에 비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광범위한 문중 공론이 형성되었다.

한편 포양 관련 정소활동은 향촌의 유생 공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 대상은 이씨가 인물이 아니라 풍산유씨 柳道章 부부의 효자 정려를 요청하는 내용인데, 30여 년 동안 참여 인원은 28개 성씨 544명에 달하였다. 효열 정려는 향촌 공론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사대부가에서는 정려를 추진할 때 문중 공론보다는 향촌 사립들과 연계하여 향촌 공론을 형성하였다. 이씨가에 남아있는 유도장 부처의 정려 추진 등장은 이러한 상황의 산물로 이씨가에서 향촌 공론을 형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의미한다. 안동 지역에서 진성이씨가의 사회적 위상과 공론 주도층으로서의 역할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주제어 : 士大夫家, 眞成李氏, 等狀, 聯名呈訴, 公論, 儒生, 鄉村社會

머리말

조선후기 사회는 다양한 사회 집단들에 의한 다양한 층위의 公論들이 형성되고 있었다. 국가적 차원의 정치 공론 외에도 향촌 사회의 유생 공론이나 민인 공론, 촌락 단위의 洞中 공론, 장시에서는 상인들의 공론, 들판에서는 농민들의 공론, 가족 친족 집단의 문중 공론 등 다양한 성격의 공론들이 공존하였다.¹⁾ 사회 집단 내 구성원들의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공론 형성 과정은 조선후기 사회의 운영 원리와 民意의 향방을 반영한다.

조선후기 聯名呈訴는 이들 다양한 사회집단들의 공론 형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매개체이다. 조선후기 민인들은 국가에 대한 民願이나 訴訟을 위하여 집단을 형성하고 의사를 결집하여 국가와 관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청원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특히 2인 이상이 연명하여 국가 및 지방관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연명정소는 향촌 사회의 민의와 공론의 향방을 담고 있다.

조선후기 연명정소 실태는 等狀 문서로 고스란히 전하고 있어 조선후기 향촌 공론의 실상에 접근하기 위한 시발점이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시대 공론에 대한 관심은 주로 정치적 차원에 집중되어 있고,²⁾ 정소 활동에 대한 연구도 연명 정소에 대한 관심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
- 1) 김경숙, 2010, 「等狀을 통해 본 조선후기 聯名呈訴와 公論 형성」, 『규장각』 36
 - 2) 조선시대 정치적 차원의 공론 형성에 대한 주요 연구는 김돈, 1993, 「16세기 전반 정치권력의 변동과 유생층의 공론형성」,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설석규, 2002, 『조선시대 유생상소와 공론정치』, 선인; 김인걸, 2002, 「조선후기 여론과 정치 : ‘公論政治’의 지속과 단절」, 『조선의 정치와 사회』, 집문당; 송용섭, 2011, 「조선 성종대 공론정치의 형성」,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등이 있다.

필자는 조선후기 각 사회집단의 다양한 층위의 공론 형성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규장각 소장 고문서 가운데 等狀 1,125건을 통계 분석하여 조선후기 향촌사회의 연명정소 실태와 공론 형성의 특성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였다.³⁾

본 연구는 그 후속 연구로서 거시적 통계 결과를 보완하고 구체화하기 위하여 한 사대부가의 사례를 대상으로 미시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安東 周村 眞城李氏家 소장의 등장 문서를 중심으로 연명정소 실태와 공론 형성의 특성을 검토하였다. 이씨가는 퇴계 이황(1501~1570)을 배출한 안동 지역의 명문 사대부가로서 향촌사회 공론 형성에서 주도적 위치에 있었고, 또한 연명정소 관련 문서가 풍부하게 남아 전하고 있어 그 실상을 구체적이고 미시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연구는 조선후기 향촌사회 사대부가의 연명정소 실상을 파악하고 공론 형성의 특성을 밝힐 수 있는 대표 사례로서 의미가 높다고 본다.

I. 진성이씨가의 연명정소 실태

안동 주촌 진성이씨가에는 2,300여건의 고문서가 소장되어 있는데, 그 중 정소활동 과정에서 작성된 所志類 문서가 84건에 달한다.⁴⁾ 이들 가운데 1인 정소 8건, 정소자 미상 3건 등 11건을 제외한 나머지 73건이 연명정소에 해당하는 等狀 문서이다. 소지류의 대부분이 등장 문서에 집중되고 양적으로도 풍부함을 알 수 있다. 작성 연대도 17세기부터 19세기 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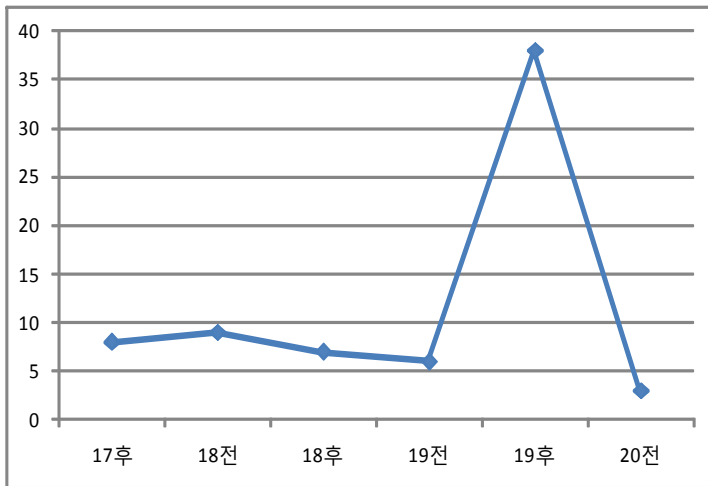
3) 김경숙, 2010, 앞의 논문 참조

4) 이씨가 소장 고문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고문서집성』 41-42, 안동 주촌 진성이씨편(1), (2)에 영인 수록되어 있다.

지 고르게 분포하여 조선후기 시기적 추이를 검토하는 데 장점을 지닌다.

이 장에서는 진성이씨의 등장 문서 73건을 중심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통계 분석하여 조선후기 향촌사회 사대부가의 연명 정소 실태를 검토하였다. 먼저 시기에 따른 연명정소의 추이를 살펴보면 【도표 1】과 같다.

【도표 1】 시기별 연명정소의 추이



이씨의 연명정소는 17~19세기 전반까지는 5~10회 정도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다가 19세기 후반에 급격히 증가하면서 활성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이씨가에 한정된 상황은 아니다. 조선후기 소지류 5,000여건을 통계 분석한 결과에서도 연명정소 활동은 19세기 이후 급증하는 현상을 보였다.⁵⁾ 이씨의 연명정소 활동은 조선후기 사회적 추세와 동일한 흐름 속에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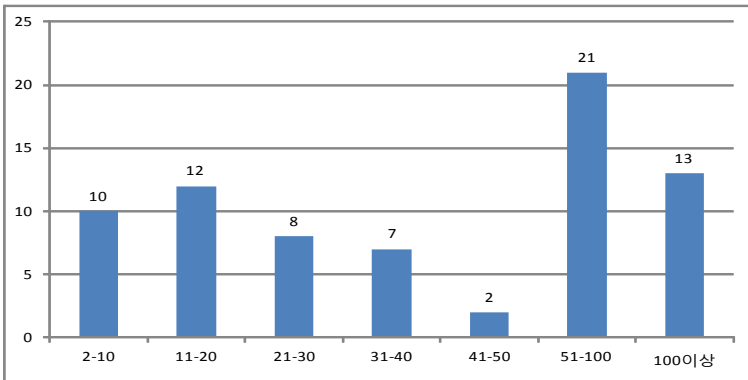
이씨의 사례를 통해 거시적인 통계 결과뿐만 아니라 한 집안의 미

5) 김경숙, 2010, 앞의 논문, 32쪽 참조.

시적인 사례 분석 결과에서도 연명정소 활동이 19세기 이후 급증하면서 활성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후기 사회는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사회 갈등의 급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民意 성장을 바탕으로 정소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19세기 사회는 의사 표출을 위한 집단 행동, 단체 활동이 활성화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경험을 활발하게 축적해 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연명정소 활동의 구체적인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자. 이를 위하여 등장에 기재된 연명인의 숫자를 토대로 연명정소의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의 【도표 2】와 같다.

【도표 2】 연명 정소의 규모



연명인의 규모는 2~10인이 10건(13.7%), 11~20인이 12건(16.4%), 21~30인이 8건(11.0%), 31~40인이 7건(9.6%), 41~50인이 2건(2.7%), 51~100인이 21건(28.8%), 100인 이상이 13건(17.8%)에 달하였다. 정소인의 규모가 확대될수록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50인 이상 구간에서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50인 이상의 대규모 정소가 34건(46.6%)로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할 뿐 아니라 51~100인의 대규모 정소는 21건으로 앞 구간에 비하여 10배 이상 활성화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후기 연명정소 활동이 2~10인 사이의 소규모 정소가 50%를 넘고 정소인의 규모가 확대될수록 점차 감소하는 양상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⁶⁾ 조선후기 연명정소 활동이 소규모 중심이었던 것과 달리 이씨의 연명정소는 대규모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나아가 대규모 중심의 연명정소는 연명인의 지역 범위 및 정소의 내용과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현상이다. 【도표 3】은 연명정소의 규모에 따른 연명인의 지역 범위 및 공론 형성의 범위를 잘 보여 준다.

【도표 3】 연명 정소의 지역 범위와 공론 형성

정소관 공론 범위 정소 규모	주현 수령			관찰사 및 암행어사		합계
	면리단계	주현단계	주현연합	주현단계	주현연합	
2-10	3	6			1	10
11-20	4	3	4	1		12
21-30	3	5				8
31-40	2	3	2			7
41-50		2				2
51-100	3	11	2	2	3	21
100이상		6	4	2	1	13
총합계	15	36	12	5	5	73

6) 조선후기 연명정소의 규모에 대해서는 김경숙, 2010, 앞의 논문, 35~36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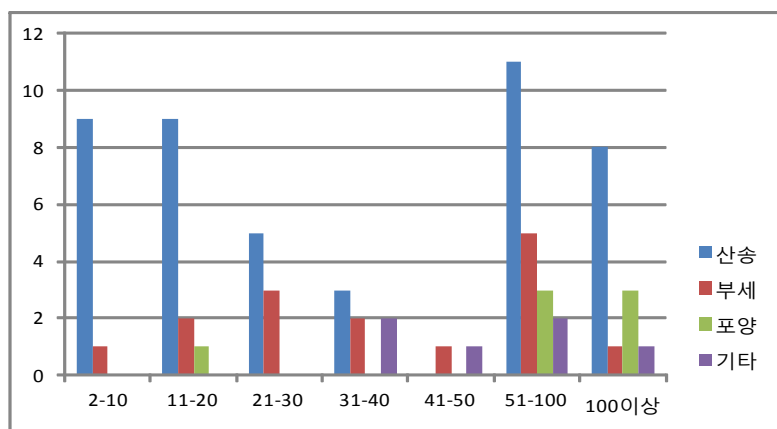
조선 후기 사대부가의 聯名呈訴 活動과 公論 형성

1차 정소관인 州縣 수령에게 올리는 연명정소는 중소규모일 때는 주로 面里 또는 주현 범위 내에서 연명인들이 참여하고, 50인 이상의 대규모 정소는 주현 또는 도내의 여러 고을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관찰사 및 암행어사에 대한 연명정소는 연명인의 참여 범위가 주현 및 주현 연합으로 주현 수령에 대한 연명정소보다 확대된 형태를 띠며 정소 규모 또한 중소규모보다는 50인 이상의 대규모 정소가 중심을 이룬다.

결국 이씨가 연명정소는 2차 정소관에 정소할 때 대규모 정소를 선호하고, 정소 규모가 확대될수록 연명인의 참여 범위 또한 면리 단계에 한정되지 않고 고을 전체 또는 고을의 범위를 넘어서 여러 고을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씨가 연명정소의 특성을 이루는 대규모 연명정소가 안동 지역 또는 안동을 포함한 인근 여러 고을의 연합적인 성격이 중심을 이루었음을 의미한다.

다음은 어떠한 사안으로 연명정소를 추진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도표 4】**에서 등장의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검토하였다.

【도표 4】 연명정소의 주제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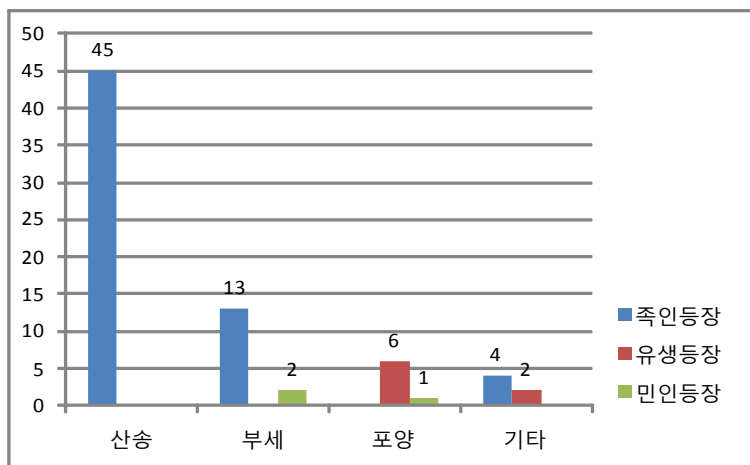
이씨의 연명정소는 산송 45건(61.6%), 부세 15건(20.6%), 포양 7건(9.6%), 기타 6건(8.2%) 등의 분포를 보인다. 산송이 절반 이상의 높은 비중을 보이고 부세 문제와 정려·증직 등의褒揚 추진이 그 뒤를 잇는데, 이들 세 주제를 합하면 91.8%로 연명정소 활동의 대부분을 이룬다. 이는 조선후기 연명정소 활동이 산송, 부세, 정려·증직, 토지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현상과 거의 일치한다.⁷⁾ 이씨의 연명정소 활동이 조선후기 시대적 과제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사회적 흐름과 동일한 맥락에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공론 주체에 따른 정소 내용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등장인 연명인들 성별과 직역을 분류하면 진성이씨 족인들로 구성된 족인 등장, 他姓 사람들로 구성된 유생 등장, 향촌 민인들로 구성된 민인 등장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문중 공론, 유생 공론, 향촌 공론을 각각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이들 공론 주체에 따른 정소 내용을 정리하면 【도표 5】와 같다.

진성이씨의 인물들로 구성된 족인 등장은 산송 및 부세 문제, 여러 성관들이 참여하는 유생 등장은 포양 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민인 등장은 부세 문제에서 미약하게 보인다. 공론 주체에 따라 연명 정소의 내용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정소 사안에 따라 공론을 형성하는 주체와 범위가 차별적으로 설정되고 있음을 말해 주는데, 산송과 부세 문제는 문중 공론, 포양 문제는 향촌의 유생 공론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정소활동에서는 향촌의 민인 공론이 부세 문제를 주도하는 현상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점도 주목된다. 다음 장에서는 산송, 부세, 포양을 중심으로 이씨의 공론 형성의 실태와 그 특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7) 조선후기 정소 활동 및 연명정소 활동의 내용에 대해서는 김경숙, 2010, 앞의 논문, 34쪽 참조.

【도표 5】 공론 주체에 따른 연명정소 내용



Ⅱ. 조선후기 사대부가의 공론 형성

1. 산송

진성이씨가 청송의 기곡과 함께 안동 일대에 선대의 누대 墳山을 수호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각 분산에 齋舍를 세우고 산지기를 두어 수백 년 동안 수호하고 있었다. 이들 분산들도 조선후기 사회 전체를 휩쓸었던 山訟의 피해를 비껴가지는 못하였다. 특히 시조부터 5세까지의 원대 조상의 분산들이 모두 산송에 휘말리면서 이씨의 분산수호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였다. 17세기 후반 이래 문서상으로 확인되는 사건도 20여 차례에 달하였다. 【도표 6】

【도표 6】 주촌 진성이씨가 선대 분산의 산송 상황

세대	분산 위치	연대	산송 발단
1세 李碩 (密直使)	기곡	1680	李時章 형제가 지식 은닉
2세 李子脩 (松安君)	도솔원	1663	권시명이 부친 투장
		1697	변정환이 火田 경작 시도
		1703	權壽이 부친 투장
		1706	安日能이 권정 투장굴거처에 투장 시도
	도솔원 (후손 계장처)	1721	양전시 산직 貴先이 位田을 자기소유로 등록시도
	1787	金星極 투장	
	1840	권기억 투장 시도	
3세 李云侯 (軍器副正)	가막산	1899	안승서, 안승우 형제가 모친(진성이씨) 투장
3세 妻 安東權氏	수리동	1780	족장 계장을 정중휴가 금장
		1810	白虎地에 정지호가 부친 투장
		1849	案對直沖에 누군가 승야투장
		1891	案對直沖에 누군가 승야투장
		1908	案對直沖에 누군가 승야투장
4세 李禎 (參判公)	작산 (가창)	1897	白虎坐立俱見地에 누군가 투장
5세 李遇陽 (仁同縣監)	도목산	1716	도목 사는 사노 乙立이 투장
		1722	김치장이 신영의 案山至近處에 置標圖占
		1887	辛祿孫이 투장
		1889	김유길이 신록손 투장총 督擱置標處에 투장
		1898	白虎壓臨處에 누군가 투장
주촌 두루종택(慶流亭)		1713	정태천이 宗家相望芝山下 宗家壓臨處에 모친투장

시조 이석의 분산이 있는 청송 기곡의 산송은 실전한 분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문중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석 분묘는 외손들이 묘제 및 분묘 수호를 분담해 오다가 실전하여 오랫동안 묘를 찾지 못하였다. 그런데 종인 이시장 형제가 모친을 기곡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그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誌石을 발견하고도 모친의 장례를 위해 은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죽인들 사이에 산송으로 발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680년 8월 이재관 등 84명이 연명으로 경상도 관찰사에게 上書を 제출하여 이 사

건이 안동부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상급기관까지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⁸⁾

2세 이자수의 분산이 위치한 안동 서후면 명동(명리)의 도솔원에서는 7차례나 산송이 발생하였다.⁹⁾ 1차 산송은 1663년 안동 府西에 사는 權時命이 부친을 투장한 사건인데, 이씨가에서 그해 11월 안동부사에게 제출한 등장에 225명이 연명으로 참여하였다.¹⁰⁾ 2차 산송은 1697년에 金溪 사는 邊廷漢이 송추를 베어내고 火田 경작을 시도한 사건으로 그해 10월 이씨가에서 56명이 집단 정소하여 안동부사에게 경작 금지를 요구하였다.¹¹⁾ 3차 산송은 1703년 西金溪에 사는 權灝이 부친을 투장한 사건인데, 이씨가에서는 20여명이 연명으로 안동부사에게 투장총을 파내 줄 것을 요구한 끝에 굴거하였다.¹²⁾ 4차 산송은 1706년에 安日能이 권정의 투장총을 굴거한 바로 그 자리에 다시 투장을 시도한 사건이다. 이씨가에서는 11명이 연명으로 禁葬을 요구하는 등장을 안동부사에게 제출하였다.¹³⁾

5~7차 산송은 도솔원의 이정희 분산을 중심으로 발생하였다. 그 중 5차 산송은 1787년에 이정희 분묘 등 누대 선영의 位田을 양전할 때에 산지기 貴先이 자기 소유로 거짓 등록을 시도한 사건이다.¹⁴⁾ 6차 산송은 金星極이 투장한 사건인데, 이씨가에서는 56명이 연명으로 정소하여 투장총을 파낼 것을 요구하였다.¹⁵⁾ 7차 산송은 1840년에 권기억이 부친을 투장한 사건으로, 그해 11월 이씨가에서는 투장총을 파내기 위하여 147명이 연명으로 안동부사에게 등장을 제출하였다.¹⁶⁾

8) 『고문서집성』41-안동주촌 진성이씨가편(1), 소지류 3.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김경숙, 2002, 「조선후기 산송과 사회갈등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참조

9) 도솔원 : 안동시 西後面 鳴里. 두실원·두솔원이라고도 한다.

10) 『고문서집성』41-안동주촌 진성이씨가편(1), 소지류 1

11) 앞의 책, 소지류 5

12) 앞의 책, 소지류 40~41

13) 앞의 책, 소지류 8

14) 앞의 책, 소지류 11~12

15) 앞의 책, 소지류 19

16) 앞의 책, 소지류 29~30

3세 이운후의 분산이 있는 안동 와룡면 가구리 가막산에서도 1899년에 안승서, 안승우 형제가 모친 진성이씨를 친정 산에 입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¹⁷⁾ 이씨측에서는 李赫淵이 나서서 정리보다는 명분을 앞세우며 누이의 분묘를 私掘함으로써 이씨가와 안씨가는 치열하게 대립하였다.¹⁸⁾

이운후의 처 안동권씨 분산이 있는 안동 북후면 道津里(도담촌) 牽芝山 搜理洞에서도 18세기 후반 이래 5차례의 산송에 휘말렸다.¹⁹⁾ 1차 산송은 1780년에 이국량, 이국교 형제가 馬沙 족장지에 모친을 繼葬하는데, 도진 사는 양반 鄭重(火+休)가 모친묘를 근거로 금장한 사건이다.²⁰⁾ 2차 산송은 1810년에 북후면 건지산 아래 수리동 분산 白虎地에 산 아래 사는 士人 鄭之浩가 부친을 투장한 사건이다. 투장총을 파내기 위하여 이씨가에서는 8월 6일 309명이 연명하여 안동부사에게 발괄을 제출하였다.²¹⁾ 3차 산송은 1849년에 수리동 분산 案山에 누군가 밤을 틈타 투장하였는데, 이씨가에서 119명이 연합하여 安東 兼官에게 上書を 올려 투장자를 찾아줄 것을 요구하였다.²²⁾ 1891년에 이르러 또다시 누군가가 白虎對案地에 밤을 틈타 투장하여 4차 산송이 발생하였다. 이씨가에서는 3개 고을 죽인 80명이 연합하여 안동부사에게 투장자를 찾아 투장묘를 파내줄 것을 요청하였다.²³⁾ 5차 산송은 1908년 5월 15일 밤에 같은 고을 사는 孫箕俊이 모친을 對案地에 투장한 사건으로 이씨가에서 안동부사에게 제출한

17) 甘岳山 :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가구리에 위치. 아름다운 산이라는 뜻으로 ‘佳’자와 ‘邱’자를 붙여 가구라 하였다. 감악(가메기)는 입구가 아궁이처럼 좁고 안쪽은 가마솥처럼 넓다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18) 앞의 책, 소지류 56~59, 61~63, 65~66, 68~70

19) 搜理洞 : 안동시 북후면. 도나리(도진,도담촌), 마사, 오금(오그미) 등의 자연마을이 있다. 도나리는 마을 앞에 나리(내)가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후에 도진리가 되었다.

20) 『고문서집성』41-안동주촌 진성이씨가편(1), 소지류 18

21) 앞의 책, 소지류 27

22) 앞의 책, 소지류 32

23) 앞의 책, 소지류 49

소장에는 106명의 죽인들이 연명하였다.²⁴⁾

4세 참판공 李禎의 분산이 있는 작산(가창)에서도 산송은 이어졌다.²⁵⁾ 1897년 12월에 누군가 白虎地에 투장하였는데, 다음해 봄까지도 투장자를 찾지 못하자 100명이 연명으로 안동부사에게 투장총을 파내줄 것을 요청하였다.²⁶⁾

5세 李遇陽의 분산이 위치한 안동 東後面 道木 牛嶺山에서는 18세기 초반 2회, 19세기 말 3회 등 모두 5차례의 산송이 발생하였다.²⁷⁾ 1차 산송은 1716년 4월에 도목 사는 寺奴 乙立이 부친을 투장한 사건으로, 이후천 등 이씨가 죽인 93명이 연명으로 안동부사에게 등장을 제출하였다.²⁸⁾ 2차 산송은 1722년에 府東面 사는 유학 金致章이 선영 案山에 置標한 사건으로, 이씨의 등장을 받은 안동관에서는 치표에 대하여 투장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굴거를 명하였다.²⁹⁾ 3차 산송은 1887년 10월 11일에 九尾 사는 辛祿孫이 밤을 틈타 아들을 案山에 투장한 사건이다. 사건은 이듬해까지 계속되어 이씨가에서는 여러 고을에서 수 십 명에서 백여 명에 이르는 죽인들이 연합하여 수차례에 걸쳐 안동부사에게 투장총 굴거를 요구하였다.³⁰⁾ 1889년에는 신록손의 투장총을 굴거한 바로 그 자리에 고을 향리 金有吉이 다시 투장하여 4차 산송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1892년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씨는 십여 명에서 백명 가까운 죽인들이 연합하여 관에 수차례 정소활동을 전개

24) 앞의 책, 소지류 73

25) 작산 : 안동시 북후면 물한리 작산마을. 작산은 농토가 비옥하여 창고에 곡물이 가득하다는 뜻의 ‘가창’인데, 이를 우리말로 ‘까체이’라 하고 한자로 鵲(까치)을 써서 작산이 되었다.

26) 앞의 책, 소지류 55, 78

27) 도목리는 아름다운 산천과 더불어 도를 잇고 화목을 중시하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道陸이라 하였고, 무릉도원처럼 아름다운 곳이라 하여 桃木村이라고도 했다.

28) 『고문서집성』41-안동주촌 진성이씨가편(1), 소지류 10

29) 앞의 책, 소지류 13

30) 앞의 책, 소지류 42~44, 84

하였다. 주촌과 일직의 죽인들이 중심이 되었으나 때로는 안동을 넘어서 인근 여러 고을들까지 합세하였다.³¹⁾ 10여년 후인 1898년에 이르러 또다시 白虎壓臨處에 누군가 투장하여 5차 산송이 발생하였다.³²⁾

종가가 있는 주촌에서도 산송이 발생하였는데, 1713년 이웃 사는 鄭泰天이 종가에서 마주 보이는 건너편 芝山 아래에 모친을 투장하였다. 종가의 지맥을 누르는 위치였으므로 이씨가에서는 17명이 연명하여 경상도 관찰사에게 상서를 올리는 등 적극 대처하였다.³³⁾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씨는 17세기 후반 이래 기곡 분산 1회, 도술원 분산 7회, 가막산 분산 1회, 수리동 분산 5회, 작산(가창) 분산 1회, 도목산 분산 5회 및 종가가 위치한 주촌 1회 등 모든 선대 분산에서 빈번하게 산송에 휘말렸다. 영남 지역의 명문대가인 이씨라도 산송을 피하지 못하고 수십 차례나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은 일반 사대부가의 산송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였을지를 짐작하게 한다. 조선후기 대부분의 사대부가는 분산을 수호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경우처럼 산송을 빈번하게 겪었고, 한 분산 내에서도 산송이 수차례 발생하는 경우도 허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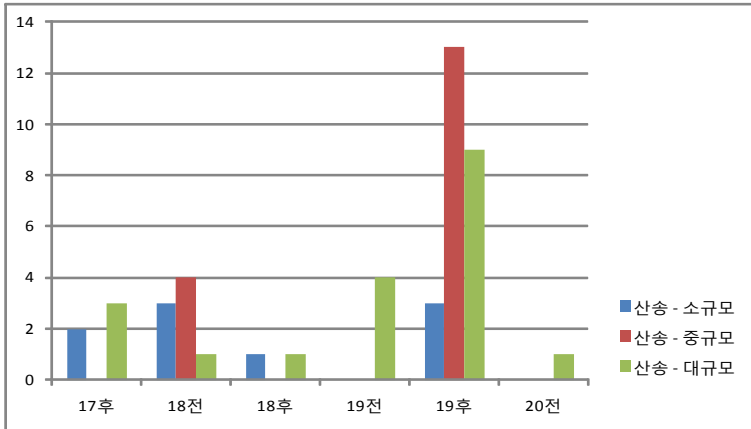
조선후기 사회 전체를 휩쓸었던 산송의 열풍 속에서 사대부가의 분산 수호는 위기에 직면하였다. 각 가문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해당 분묘의 자손들을 중심으로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는 죽인들이 연합하여 문중 공문을 형성하고 집단으로 대처하였다. 진성이씨가에서도 시조부터 5세조 분산에서 발생한 21건의 산송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죽인들을 중심으로 문중 공문을 형성하고 집단 정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전하는 등장에는 공문 형성에 참여한 연명인들의 성명이 모두 실려 있다. 이들 연명인의 명단을 시기별로 분류하면 【도표 7】과 같다.

31) 앞의 책, 소지류 45~48, 50

32) 앞의 책, 소지류 54

33) 앞의 책, 소지류 9

【도표 7】 산송 관련 정소활동의 시기적 추이



도표를 보면, 연명정소 활동에 참여한 연명인의 숫자는 시기가 내려감에 따라 점차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명 이하의 소규모 정소활동은 각 구간마다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어 시기에 따른 변화상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비하여 50인 이하의 중규모 및 50인 이상의 대규모 정소활동은 19세기 이후로 급증한다. 그 결과 17, 18세기까지는 대·중·소규모의 정소활동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19세기 이후로는 중·대규모 정소활동이 압도적인 비중을 보인다. 산송에 대처하는 방식이 시기가 내려감에 따라 점차 적극적이고 대규모화하였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9세기에는 중·대규모 정소활동이 주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연명인의 거주지 분포 또한 주목된다. 앞 장의 【도표 3】에서 확인하였듯이 등장 전체의 연명인의 거주지 분포는 면리 단계 15건(20.6%) - 주현 단계 41건(56.2%) - 주현 연합 17건(23.3%)의 분포를 보인다. 이에 비하여 산송 관련 연명인의 거주지는 면리 단계 9건(20%) - 주현 단계 21건(46.7%) - 주현 연합 15건(33.3%)으로 전체 등장보다 주현 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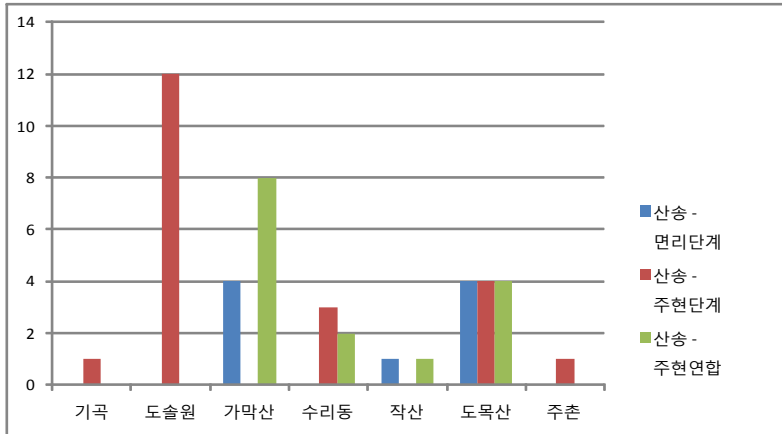
의 비중이 10% 가량 높게 나타난다. 산송 등장의 연명인들에서 거주지 분포가 보다 광범위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조상의 분묘에 관련된 산송은 문중 공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위선 의식을 바탕으로 자손들의 공감대 형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다른 사안들에 비하여 지역적으로 폭넓은 공론 형성과 정소 활동 참여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각 분산에 따라서도 공론 형성의 지역적 범위는 다소간 차이를 보인다. 【도표 8】 2세 이자수의 분묘가 자리잡은 도솔원 산송에서는 주현연합이 나타나지 않고 주현 단계 즉 안동 지역 내에서 문중 공론이 형성되었다. 이에 비하여 3세 이운후의 가막산 산송은 안동 지역을 넘어서서 인근 고을 죽인들까지 연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각 분산에 따라 공론 형성의 지역 범위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어디에서 유래하였을까? 우선적으로 자손들의 거주지 분포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2세 도솔원이 주현 단계에 한정된 반면 3세 가막산이 주현 연합의 특징을 보이는 현상은 세대가 내려올수록 친족의 범위가 넓어지는 원리와 상반된다. 3세보다는 2세의 자손들이 숫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넓게 분포하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에 도솔원과 가막산의 역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점은 산송의 발생 시점이다. 도솔원의 산송 등장은 17세기 후반 4건, 18세기 전반 5건, 18세기 후반 1건, 19세기 전반 2건으로 대부분 17, 18세기에 집중되었다. 이에 비하여 가막산의 산송 등장은 12건 모두 19세기 후반에 집중되었다. 산송 발생의 시점이 공론 형성의 지역 범위와 깊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산송이 집중된 도솔원은 안동 지역 내에서 공론이 형성되었던 반면 19세기 후반에 집중된 가막산 산송은 공론 형성의 지역 범위가 확대되어 주현 연합이 중심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시기가 내려감에 따라 공론 형성의 규모 및 지역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가 각 분산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특징적인 모습을 띠게 된 것이다.

【도표 8】 산송관련 등장 연명인의 지역 분포



2. 부세

조선후기 사회 변동 속에서 국가 체제는 사회적 모순을 노출하며 각 분야에서 개혁의 요구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그 중 하나가 부세 문제로 조선후기 사회 갈등의 중심에 위치하였다. 이는 조선후기 민인들의 정소 활동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부세 문제는 民訴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³⁴⁾ 그 결과 현전하는 18세기 후반 이후의 소지류 중에서 양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는 것이 산송과 함께 부세 문제에 대한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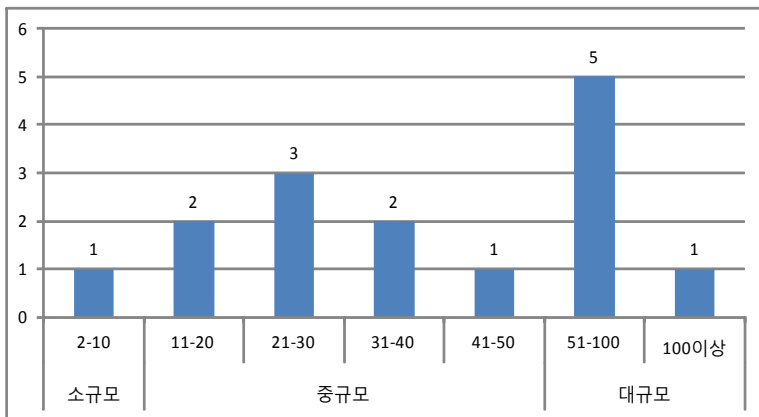
정소 활동에 반영된 부세 문제는 대체로 향촌 사회에서 지방관의 전세, 군역, 환곡 등의 三政 운영 및 잡역·잡세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폐단과 민인들의 피해 상황에 집중되었다. 부세 운영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부

34) 김인걸, 1990, 「민장을 통해서 본 19세기 전반 향촌 사회문제」, 『한국사론』 23 ; 김경숙, 2010, 앞의 논문, 34쪽 참조

세 관련 정소 활동은 주로 1인 정소 활동으로 전개되었다. 연명 정소의 경우에도 대규모보다는 당사자에 국한되는 중·소규모 정소활동으로 전개되는 것이 특징이다.³⁵⁾

진성이씨가에서도 17세기 후반 이래 부세 문제와 관련한 정소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씨가의 정소 활동의 특징은 1인 정소가 드물고 대부분 연명정소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한 점이다. 현전하는 소지류 17건 가운데 15건이 등장으로 확인된다. 정소활동에 참여한 연명인의 규모에 있어서도 소규모보다는 중대규모 정소활동이 중심을 이루었다. 10인 이하의 소규모 정소는 1건에 불과한 반면 50인 이하의 중규모 정소가 8건, 50인 이상의 대규모 정소도 6건에 달하였다. 【도표 10】 일반 민인들의 부세관련 연명정소가 당사자에 국한되어 중소규모에 집중되고 50인 이상의 대규모 정소활동은 드문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도표 10】 이씨가의 부세관련 정소활동의 규모



35) 김경숙, 2010, 앞의 논문, 37~38쪽 참조.

조선 후기 사대부가의 聯名呈訴 活動과 公論 형성

이씨의 부세 관련 정소 활동이 중대규모 중심으로 전개된 배경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정소 활동이 선대 분산의 수호 과정에서 추진된 점이 주목된다. 【도표 11】 분산 수호와 관련 없는 등장은 1868년에 안동 북선면 下里의 雜役을 균등히 배분해 줄 것을 요청한 1건(10번 문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분산 수호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씨의 부세관련 연명정소는 선대 분산 수호 과정에서 전개되었기 때문에 분묘의 후손들이 연명정소에 대거 참여하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부세관련 연명정소 활동과 달리 이씨의 중대규모 정소활동은 산송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중대규모의 문중 공론이 형성되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도표 11】 이씨의 부세관련 연명정소 활동

번호	문서명	연도	대표 정소인	연명인 숫자	정소 내용	출전 ³⁶⁾
1	발괄	1687.9	李朝鳴	28	가창제사(이정묘) 僧徒들의 僧役勿侵完文 요청	4
2	상서	1700.5	李暹	91	가창제사 僧軍의 烟戶雜役 勿侵요청	6
3	상서	1704.7	李暹	36	가창제사 僧徒勿侵事 題給요청	7
4	소지	1766.8	李春權	89	우역제사 守直의 年老無子 탈하 요청	16
5	등장	1777.5	李世元	20	전례에 따라 도솔원, 수리동, 가창산, 가막산 山直 守護 完文 요청	17
6	발괄	1793	李達瑞	32	도솔원, 수리동, 가막산, 가창산 齋舍 完文 요청	20
7	발괄	1793.7	李達瑞	106	도솔원, 수리동, 가막산, 가창산 墓直 完文 요청	21
8	소지	1799.2	李孝職 李有白	64	전례에 의거하여 도솔원, 수리동, 가막산, 가창산 山直 完文요청	22
9	상서	1854.2	李若天 李彙政	41	작산 재사의 還上, 雜役 탈하 완문이 있는데 금년 환자 분배는 부당함을 호소	34
10	소지	1868.1	李象□	11	안동부 북선면 下里의 雜役을 균등히 배분해 줄 것을 요청	37

11	상서	1897.3	李宜燦 李興魯 李康鎬	62	도솔원, 수리동, 가창산, 가막산 守直 雜役 탈하 完文을 제시하며 戶籍 분배에 반영할 것을 요청	53
12	상서	1897.4	李章文 李宜燦	30	先廟先龕 守直의 戶錢雜役 탈급에 의거하여 이번 大役事에도 면제 요청	52
13	상서	1903. 윤5	李赫淵 李在政	30	慶流亭에 부과된 徵納 면제를 요청	72
14	등장	1903. 윤5	李厚坤 李在淵	54	慶流亭에 부과된 徵納米 면제를 요청	71
15	소지	갑인 2	金眞伊 百伊 者斤象	3	작산제사 齋奴의 還上, 洞布, 諸般雜役 탈급요청	75

정소 활동의 구체적인 대상은 안동 지역에 분포한 도솔원, 가막산, 수리동, 가창산(작산), 도목산의 선대 분산 및 주촌 종택 慶流亭(이정의 不遷位廟)에 집중되었다. 이씨가에서는 각 분산에 재사를 건립하고 산지기를 배치하여 묘제와 분묘 수호를 담당시키고 있었다. 특히 작산마을의 가창재사는 15세기 말 이우양 형제가 창건하고 16세기 중엽 퇴계 이황이 주도하여 중수한 이씨의 대표적인 재사이다. 그곳의 재사 관리는 승려, 분묘 수호는 산지기가 담당하는 2원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³⁷⁾

조선 후기 사대부가에서는 분산 및 재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으로부터 完文을 발급받아 산지기의 잡역·잡세를 면제받는 혜택을 누렸다. 이씨가에서도 승려 및 산지기의 면역·면세를 위해 수백 년 전부터 완문을 발급받아 왔다.³⁸⁾ 1897년 3월 이의찬 등이 안동부사에게 제출한 上書의 내용 중에 ‘예전에 寒岡 鄭逵(1543-1620), 柏巖 金玟(1540-1616) 두 선생이

36) 출전은 『고문서집성』 41- 안동 주촌 진성이씨편(1)의 소지류 수록 번호임

37) 이씨의 가창 재사 운영에 대해서는 김문택, 2003, 「안동 진성이씨가 재사의 건립과 운영」 『조선시대사학보』 27 참조

38) 이씨의 완문 발급과 면세·면역 혜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김혁, 2005, 「안동 李庭楡 집안 소장 묘지탈역 완문을 통해서 본 조선 후기 사족특권의 성격」 『법사학연구』 31 참조

안동부사 재임시에 완문을 획급하여 잡역을 면제한 친필 서명을 분명히 살필 수 있습니다'고 하여 이 집안의 완문 발급은 17세기 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607년 정구가 발급한 완문에서는 2대조 송안군 이자수묘, 3대조 이운후 처 안동권씨묘, 4대조 이정묘에 각각 산지기 5호를 정하고, 승도에 대해서도 잡역을 면제하였다.³⁹⁾

그런데 완문은 수령이 교체되면 효력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였다.⁴⁰⁾ 이씨가와 같은 경우에도 완문이 있지만 수령이 교체되거나 특정 상황 하에서 면역·면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씨가 사람들은 대대적으로 문중 공문을 형성하고 안동부사에게 면역·면세를 회복하고 유지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정구의 완문은 대대로 완문 발급 및 면역·면세 요청의 주요 근거로 작용하였다. 이같이 이씨가와 부세관련 정소활동은 분산수호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분묘의 자손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결과 일반 민인들의 중소규모의 정소활동과 달리 중대규모를 형성하였던 것이다.

3. 포양

旌表政策은 성리학 이념에 기반한 조선사회의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제도의 하나로 성리학의 기본 덕목인 충·효·열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인물들을 褒揚하였다. 이는 18, 19세기에 이르면 정표자가 급증하면서 과열되는 양상을 띠었고 특히 효·열과 관련된 정려는 해당 가문의 사회적 위상과 영향력에 의해 좌우되기도 하였다. 성리학 사회에서 정표

39) 『고문서집성』 41, 완문 1, 454쪽 참조. 당시 3대조 이운후 묘는 실전 상태였기 때문에 수호 대상에서 제외됨.

40) 완문의 특성과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는 김혁, 2005, 「조선시대 완문에 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참조

자를 배출한 가문은 물질적 포상, 부세 혜택과 같은 직접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가문의 품격 및 지역사회에서의 위상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때문에 조선후기 사대부가에서는 효·열 정려를 획득하기 위한 정소 활동을 적극 추진하였다.⁴¹⁾

이씨가 연명정소 활동에서도 정표 포양을 확인할 수 있는데, 포양 대상자가 柳道章(1807-1877) 부부의 효자 정려를 요청하는 내용임이 주목된다. 유도장은 안동의 풍산유씨 유성룡의 방계 후손으로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臥龍面誌』에 의하면 柳進文의 아들로 확인된다.⁴²⁾ 그는 부친이 안질을 앓아 실명 위기에 처하자 한겨울에 약초 구하기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극정성으로 찾아 헤맨 끝에 약초를 구해 병을 회복시켰다. 이후 부친이 노년에 거동이 불편하게 되자 대소변 수발까지 들면서 봉양하였다. 그의 처 김씨 또한 집에 화재가 났을 때 불 속에 뛰어들어 시부모 구하는 등 시부모 봉양에 극진하여 남편과 함께 효자 효부로 명성이 높았다.⁴³⁾

이들 유도장 부부의 정려 추진 문서를 타가문인 이씨가에서 소장하게 된 배경은 조선후기 사대부가 정려 운동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효열 정려는 행적의 탁월함과 사실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향촌 공론이 주요 근거로 작용하였다. 지방관 즉 고을 수령과 관찰사는 정려 요청 民狀을 접수하면 향촌 공론을 요구하기 마련이었다. 죽인들로 구성된 문중 공론은 객관성이 약하여 국가와 관을 설득하기에 부족하였다. 이 때문에 사대부가에서 정려를 추진할 때 문중 공론을 내세우는 경우는 드물었다. 향촌

41) 정표정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박주, 1990, 『조선시대의 정표정책』, 일조각 참조

42) 와룡면지 : 일제강점기 중인 1933년 무렵 안동 출신 김영갑과 김영규가 와룡면과 면내 각 동의 연혁, 강역, 인물, 산천, 전결, 고적 등을 기록한 지방지로 4권 2책으로 구성되었다(디지털 안동문화대전, 와룡면지; <http://andong.grandculture.net> 참조).

43) 『고문서집성』 41, 소지류 23, 160-161쪽, 안동 유학 김찬주 등이 안동부사에게 제출한 上書 참조

조선후기 사대부가의 聯名呈訴 活動과 公論 형성

공론을 입증하기 위하여 향촌의 사람들과 연계하여 정려 운동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9세기 초반 부안의 부안김씨가에서 김채상의 효자 정려를 추진할 때에도 서원 및 향교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향촌 공론을 적극적으로 형성한 결과 60년 만에 정려를 획득하였다.⁴⁴⁾ 안동 진양하씨가 또한 河鎭兌(1737-1800)의 효자 정려를 위하여 문중 공론보다는 향촌 사람을 중심으로 수십 년 동안의 정소 활동 끝에 1891년에 이르러 정려를 하사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⁴⁵⁾ 향촌사회에서 정려를 위한 연명정소는 향촌 사람 공론이 주도하였고, 이씨가에 남아있는 유도장 부처의 정려 추진 등장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산물이다.

【도표 12】 이씨의 포양 관련 연명정소 활동

문서 종류	연대	정소인	정소 인수	정소관	출전
상서	1845.12	化民 權承夏, 金重七 等	67	안동부사	31
상서	1863.4	化民 金瓚主, 鄭基洛 等	56	안동부사	23
등장	1863-1865	府 北先面 小民 等	17	안동부사	80
상서	1865.5	化民 金昌銖, 權秉淵 等	109	안동부사	25
상서	1866.3	安東 裴善萬, 李海一 等	108	경상도관 찰사	26
상서	1868.윤4	順興 成鍾震, 禮安 李彙澤 等	105	암행어사	36
상서	1878.2	禮安 李晚杰, 榮川 金奎永 等	99	암행어사	39

유도장 부처의 정려 포양을 위한 연명정소 활동은 1845년 12월 안동 부사에게 상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등장에 참여한 연명인은

- 44) 김채상의 효자정려 과정은 박병호, 1999, 「거래와 소송의 문서생활」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참조
- 45) 하진태 효자 정려는 김학수, 2008, 「고문서를 통해본 진양하씨 滄洲家の 사족적 위상」 『남명학연구』 25에 추진 과정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모두 14개 성씨 67명에 달하였다. 이후 30여 년 동안 안동부사 - 경상도 관찰사 - 암행어사 등의 단계를 거치며 대규모의 연명정소 활동이 이어졌다. 【도표 12】

그 과정에서 등장을 받은 지방관은 ‘博探公議’ 즉 공론을 더 널리 모아올 것을 요구하였다. 정소활동이 전개됨에 따라 사람 중심의 연명인 규모는 60여명에서 100여명으로 점차 확대되어 갔다. 이와 함께 참여 성씨들도 李, 金, 權, 鄭, 安 등 해당 지역의 유력성씨들이 대부분 포함되면서 14성 - 7성 - 17성 - 16성 - 23성 - 21성으로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초기에는 보이지 않다가 후기에 새롭게 참여한 琴, 朴, 徐, 成, 玉, 張, 丁, 崔, 河 등의 성씨들은 비록 참여 숫자는 적지만 향촌 공론의 확대 현상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도표 13】 지역적으로도 1866년까지는 안동 내에 한정되어 있지만 이후로는 타 고을로 확산되어 1868년 암행어사에게 제출한 상서는 순흥과 예안, 1878년의 정소활동은 예안과 영천 사람들이 정소활동을 주도하였다.

【도표 13】 유도장부부 정려관련 등장의 연명인 성씨분석

연도 성씨	1845년	1863년	1865년	1866년	1868년	1878년	합계
姜	1		1	1	3		6
具	2	8	1	2	1		14
權	8	8	14	16	11	6	63
琴					3	2	5
金	21	18	38	36	23	19	155
南	1		1	1	1	2	6
柳	4		1	2	4	6	17
朴	1		1	1	4	1	8
裴	3		5	6	1	1	16
白					2	1	3
徐					2	2	4

조선 후기 사대부가의 聯名呈訴 活動과 公論 형성

成					3	2	5
孫		1	1	1	1		4
宋					1	1	2
申	1		2	2	2		7
禹							0
安	5	5	9	8	4	5	36
吳			1				1
玉			1	1	1	1	4
李	11	3	13	14	21	38	100
張						1	1
鄭	5	13	17	14	9	2	60
丁					1	1	2
趙	2		2	2	4	5	15
崔						1	1
河						1	1
洪	2		1	1	2		6
黃					1	1	2
합계	14성 67명	7성 56명	17성 109명	16성 108명	23성 105명	21성 99명	28성 544명

신분적으로도 하층민들의 공론이 형성되는 단계까지 발전하였다. 1863년과 1865년 사이에 안동부 북선면 소민들이 안동부사에게 제출한 등장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소민 등장을 받은 안동부사는 ‘이번 소민들의 등장으로 더욱더 大同之論을 볼 수 있으니, 柳班의 탁월한 행적이 어찌 참으로 □…□하지 않겠는가? 더욱이 부인의 효성이 보통을 훌쩍 뛰어넘으니 가히 1門2孝라고 할 수 있다. 褒獎을 늦출 수 없으니 더욱더 公議를 모아서 감영에 보고하여 격려하게 할 것’이라는 처분을 내렸다. 소민들의 연명정소를 계기로 명실상부한 향촌의 대동 공론을 입증한 셈이었다. 그러나 안동부사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공론을 더욱더 모아 올 것을 요구하였다.

유도장 부부의 정려 추진 과정은 효열 정려에 있어서 향촌 공론의 중요성을 그대로 반영한다. 나아가 이씨가에 관련 문서가 일괄 소장되어 있

다는 사실은 이씨가에서 유도장 부부의 정려 추진 사업에 깊이 관련되어 있고 향촌 공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의미한다. 『와룡면지』에 의하면 암행어사에게 유도장 부처의 정려를 요청하는 上書を 올릴 때 이씨의 李吾周(1809-1883)⁴⁶⁾가 문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이씨의 주도적인 역할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안동 지역 일대에서 진성이씨의 사회적 위상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향촌 사회 내에서 공론 주도층으로서의 역할은 자연스러운 결과일 것이다.

맺음말

이상에서 안동 주촌의 진성이씨가 소장 고문서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사대부가의 연명정소 실태와 공론 형성의 특성을 검토하였다. 향촌사회 사대부가의 연명정소 활동은 조선후기 공론 형성의 담론을 공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사적이고 사회적인 공간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씨의 연명정소 활동은 기본적으로 조선후기 연명정소의 흐름과 맥락을 같이하면서 부분적으로는 이 집안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인다. 시기적으로는 19세기 이후에 집중되며 특히 19세기 후반에 급증하여 조선후기 연명 정소가 19세기 이후 활성화하는 추세와 동일한 흐름을 띠고 있다. 19세기 사회는 의사 표출을 위한 집단 행동, 단체 활동의 사회적

46) 이오주 : 자는 聖從, 호는 松隱. 안동 와룡면 주촌 德坡里 출신. 조부는 學白, 부친은 통덕랑 顯植, 모친은 南陽洪氏. 12, 3세에 백부 石灘公에게서 배우고 성장한 후에는 定齋 柳致明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金贊玉·金繼孟 등과 교유하였다. 문장으로 세상에 이름을 날렸으나 평생 세속의 영리에 뜻을 두지 않고 살았다. 유집으로 『松隱遺稿』이 있다.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참조)

경험들이 활발하게 축적되고 활성화되는 시기임을 거시적 통계뿐만 아니라 이씨가에 대한 미시적 분석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조선후기 일반적인 연명정소가 소규모 중심인 것과 달리 이씨가의 연명정소 활동은 50인 이상 대규모의 특징을 띠며 이는 대규모 공론 형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씨가의 연명정소 활동이 대규모 중심으로 전개된 것은 선대의 분산 수호와 깊은 관련성을 보인다. 정소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송 45건(61.6%), 부세 15건(20.6%), 포양 7건(9.6%), 기타 6건(8.2%) 등으로 조선후기 연명정소 활동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 가운데 정소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송과 부세 문제가 모두 분산 수호 과정에서 전개되었다.

이씨가에서는 청송 기곡을 비롯하여 안동 일대에 도솔원, 가막산, 수리동, 작산(가창), 도목산 등의 선대 분산을 수백 년 동안 수호하였다. 그런데 조선후기 사회 전체를 휩쓸었던 산송의 열풍 속에서 17세기 후반 이래 시조 이하 5대조에 이르는 모든 분산에서 산송을 겪어야 했다. 이씨가는 산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죽인들을 중심으로 문중 공론을 형성하고 집단 정소활동을 전개하였다. 시기적으로 17, 18세기까지는 대·중·소규모의 정소활동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19세기 이후로는 중·대규모 정소활동이 중심을 이루며, 지역적으로도 면리 단계 보다는 주현 단계 또는 주현 연합의 광범위한 공론 형성을 선호하였다. 산송에 대처하는 방식이 점차 적극적이고 대규모화해 갔음을 의미한다. 문중 공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조상의 분묘에 관련된 산송은 자손들의 위선의식을 바탕으로 공감대 형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다른 사안들에 비하여 지역적으로 폭넓은 공론 형성과 정소 활동 참여가 가능하였을 것이다.

부세 문제 또한 산송과 마찬가지로 분산 수호 과정에서 면세·면역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개되어 하층민의 부세 관련 정소활동

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하층민의 정소활동이 대체로 부세 운영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당사자로 국한되어 1인 정소 또는 중·소규모 정소활동이 주도하였던 반면 이씨가는 1인 정소가 드물고 연명정소 또한 중·대규모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선대 분산 수호를 실현한다는 爲先意識을 바탕으로 분묘 후손들이 연명정소에 대거 참여한 결과였다. 산송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중대규모의 문중 공론이 형성되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소 활동의 대상은 도솔원, 가막산, 수리동, 가창산(작산), 도목산의 선대 분산 및 주촌 종택 慶流亭(이정의 不遷位廟)에 집중되었다. 이씨가에서는 이들 각 분산에 재사를 건립하고 산지기를 배치하여 묘제와 분묘 수호를 담당시키고 관으로부터 完文을 발급받아 잡역·잡세를 면제받는 혜택을 누렸다. 그 시기는 1607년 정구가 발급한 완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완문의 특성상 수령이 교체되거나 특정 상황에서 효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씨가에서는 대대적으로 문중 공론을 형성하고 정소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이씨의 부세관련 정소활동은 일반 민인들의 중소규모의 정소활동과 달리 대규모 형태를 띠었다.

한편 포양 관련 정소활동은 향촌의 유생 공론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그 대상도 이씨가 인물이 아니라 풍산유씨 柳道章 부부의 효자 정려를 요청하는 내용임이 주목된다. 30여년 동안 연명정소에 참여한 총 인원은 모두 28개 성씨 544명에 달하였는데, 안동부사 - 경상도 관찰사 - 암행어사 등의 단계를 거치며 대규모 정소 활동을 전개하였다. 등장을 받은 지방관은 대체로 공론을 더 널리 모아줄 것을 요구하였고, 정소활동이 전개됨에 따라 사림 중심의 향촌 공론은 점차 확대되어 갔다. 연명인의 규모는 60여명에서 100여명으로 증가하였고, 참여 성씨들도 14성 - 7성 - 17성 - 16성 - 23성 - 21성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지역적으로도 안동에서 예안,

순흥, 영천 등 인근 타고을로 확산되어 갔으며 신분적으로도 하층민들의 공론 형성까지 확대되었다. 이처럼 유도장 부부의 정려 추진 과정은 효열 정려에 있어서 향촌 공론의 중요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씨가에서 타가문 인물의 정려 추진 문서를 소장하게 된 이유는 조선후기 사대부가 정려 운동의 특성을 반영한다. 효열 정려를 판단하는 근거로 향촌 공론을 중시하는 인식 하에 지방관은 정려 관련 民狀을 접수하면 향촌 공론을 요구하였다. 문중 공론은 국가와 관을 설득하기에 부족하였으므로 사대부가에서는 정려를 추진할 때 문중 공론을 내세우는 대신 향촌 공론을 입증하기 위하여 향촌 사립들과 연계하여 정려 운동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향촌사회에서 정려를 위한 연명정소는 향촌 공론이 주도하였고, 이씨가에 남아있는 유도장 부처의 정려 추진 등장은 이러한 상황의 산물이다. 특히 이씨가에 관련 문서가 전하는 것은 이 집안이 유도장 부처의 정려 추진 사업에 깊이 관계하였고 향촌 공론을 형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의미한다. 안동 지역 일대에서 진성이씨의 사회적 위상과 향촌 사회 내에서 공론 주도층으로서의 역할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김인걸, 1990, 「민장을 통해서 본 19세기 전반 향촌 사회문제」 『한국사론』 23
- 박 주, 1990, 『조선시대의 정표정책』, 일조각
- 김 돈, 1993, 「16세기 전반 정치권력의 변동과 유생층의 공론형성」,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박병호, 1999, 「거래와 소송의 문서생활」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 설석규, 2002, 『조선시대 유생상소와 공론정치』, 선인
- 김경숙, 2002, 「조선후기 산송과 사회갈등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김인걸, 2002, 「조선후기 여론과 정치 : ‘公論政治’의 지속과 단절」 『조선의 정치와 사회』, 집문당
- 김문택, 2003, 「안동 진성이씨가 재사의 건립과 운영」 『조선시대사학보』 27
- 김문택, 2004, 「16~17세기 안동의 진성이씨 문중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 김 혁, 2005, 「안동 李庭檜 집안 소장 묘직탈역 완문을 통해서본 조선후기 사족특권의 성격」 『법사학연구』 31
- 김 혁, 2005, 「조선시대 완문에 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 박현순, 2006, 「16-17세기 예안현 사족사회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김학수, 2008, 「고문서를 통해본 진양하씨 滄洲家の 사족적 위상」 『남명학 연구』 25
- 김경숙, 2010, 「等狀을 통해 본 조선후기 연명정소와 공론 형성」 『규장각』 36
- 송웅섭, 2011 「조선 성종대 공론정치의 형성」,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abstract

The Sa-Daebu Families' Joint Petition and Drawing Collective Consensus in the late Joseon dynasty

Kim, Kyeongsook

Examined in this article, are the practice of filing petitions jointly and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opinion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The source of those examples are Deungjang(等狀) documents that had been owned by Jin'sung Lee house which lived in Juchon(周村), Andong area of the Kyeongsang-do province for generations.

The joint petitions of Lee were increased rapidly and became very popular in the late 19th century, and were concentrated in large scale more than fifty persons. Most of them were closely connected to guard the mountains which were full of their ancestors' graves. The lawsuits concerned burial mountains(“山訟”) and tax issues constituted a larger percentage of Lee houses' petitions, most of them were filed in the process of guard their mountains. Through the lawsuits of burial mountains and tax issues, Clan group of Lee could form consensus for realization of their guard the mountains based on honor their ancestors. Therefore They could actively participate to filing petitions and widely form the public opinions within the clan, compared to other issues.

On the other hand, joint petitions for commemoration and decoration were proceeded by confucian scholars of local society through drawing collective consensus. They were proceeded for Ryu Do'jang couple who

were Pung'san Ryu family not Lee family. Government put emphasis on the public opinion of local society for the commemoration and decoration of devoted son and daughter-in-law, so the Sa-Dae'bu families were more concerned with forming the public opinion of local society than clan. In this situation, Deungjangs referring to process of commemoration and decoration for Ryu couple have been in Lee house, and they signifies a leading role of Lee family in forming the public opinion of local society.

Keywords : Sa-Daebu Families, Jin'sung Lee Families, Deungjang,
Joint Petition, Collective Consensus, Public Opinion, Clan,
Confucian Scholar, Local Society